

무안 일부 군의원 행정사무감사 뒷전 한심 작태

## 의장은 음주중, 의원은 산행중

### 한 의원은 보조금 받아 본인 한옥 공사 하기도

지자체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자리를 뜨는가 하면 산행까지 다녀온는 등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아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무안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 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들을 참석시킨 뒤 올해 제기된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현장검증 등 활동을 하기로 꾸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군의회 특위 소회의실에는 전체 7명의 의원 가운데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나머지 5명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J의장은 이날 오후 술에 취해 애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하면, L의원은 전남도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인 행복마을 한옥단지사업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한옥 공사를 하는 '만용'을 보였다.

또 Y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인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달 26~28

일 제주도 관광을 다녀왔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군의원은 지난 달 정례회 기간 중에 공무원과 삼합 면내 도체에서 일방 '고스트'판을 벌여 군민들의 반죽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군민 P모씨는 "곪은 대로 곪은 지방의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프고 아깝다"고 혀를 쓰았다.

군민 L모씨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의기관으로 뽑은 우리 군민들이 잘못"이라며 "차기 선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대로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군민 K모씨는 "군의회와 의원들은 군민이 있어야 존재한다"면서 "군민의 감시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형 특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무안군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방식은 민원사항에 따른 개별감사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반갑습니다~ 평양 민속예술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회장 이상현)은 최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평양 민속예술단과 중국 기예단을 초청,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을 개최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신안 재활용 예술조형물 '잡음'

### 작가들 "일정 촉박...특정업체 위한 짜맞추기"

신안군이 추진 중인 '폐염전을 활용한 소금공원 예술조형물 제작사업'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이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4일 나라장터에 '폐염전을 활용한 소금공원 재활용 예술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0억원이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재활용 예술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등록은 4월까지이며 제안서와 가격찰서 등 각종 서류를 14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중경작가는 A씨 등 지역 작가들은 "등록 이후 작품 제안서 제출이 10일로 기간이 너무 짧다"며 "작은 아파트에 설치할 조형물도 제안서 제출기간이 최소 30일인데, 10일로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짜맞추기 사업"이라고 강하게 반발

했다. 그는 이어 "미술인들이 정당하게 경쟁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일정 상 등록과 제안서 제출 등 일정이 다소 족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업체나 공동수급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조형물 제작에만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 조형물과 1천652.9m에 이르는 소금공원을 꾸밀 다양한 조형물과 화장실,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안=조완규기자 wncho@

했다. 그는 이어 "미술인들이 정당하게 경쟁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일정 상 등록과 제안서 제출 등 일정이 다소 족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업체나 공동수급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조형물 제작에만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 조형물과 1천652.9m에 이르는 소금공원을 꾸밀 다양한 조형물과 화장실,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일기자 ck@

### 목포 서산·온금 지구

#### 토지거래 허가 구역

#### 2014년까지 지정

전남도는 도시 재정비가 추진되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오는 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목포 서산·온금·금화·유달동 일원 0.38㎢이며, 지정기간은 3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사업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 토지거래를 할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660㎡, 기타지역은 9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허가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 척수염 투병 혜은양에 성금 4,100만원

### 진도 초·중·고·전국 각지 후원

"작은 정성이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혜은이에게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달 27일 진도군 고성초등학교(교장 박병이)에서 급성 횡단성 바이러스 척수염으로 투병중인 하혜은(6·고성초 유치원) 양을 향한 전국 각지의 도움의 손길이 담긴 '사랑의 성금'이 전달됐다. 이날 박병이 교장은 지난 9월1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담지한 성금 4천 100만원을 하 양의 어머니 이미선씨에게 전달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한 얼굴과 혀黠은 목소리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하 양이 병마에 쓰러진 것은 지난 7월, 갑자기 하리에 통증이 찾아와 병원으로 급기 후송돼 진단한 결과 급성 횡단성 바이러스 척수염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아 3개월 동안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급하게 치료를 했지만 하반신 마비로 현재 황체어



에 앉아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박 교장 등 고성초등학교 주도로 지난 10월말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하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돼 1천200만원이 모아졌으며, 진도 초·중·고교 및 기관단체와 전국적인 후원 등이 진행되면서 4천 100만원을 전달하게 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42개 경로당·노인 200세대 고구마 전달

### 진도군 의신면 청년회

진도군 의신면(면장 박수길) 청년회(회장 박연화)는 올 여름 8천260㎡(2천500평)의 공한지를 정비한 뒤 이곳에 고구마를 심어 최근 수확해 관내 42개 경로당과 불우인 등 200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고구마 밭은 의신면 공직자들과 청년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불우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생산적인 복지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신면은 올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치와 생필품 전달, 추석절 송편 배



달, 경로당 국수 및 과일 전달, 빨래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박수길 의신면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섬지역 응급환자 원격 진료

### 서해해경 화상 시스템 시행

서해 섬 지역과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양경찰 경비정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한 원격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허가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일기자 ck@

를 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이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목포해경이 소속 경비함 4척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2일

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나선다.

서해청은 경비정과 목포 한국병원 간 협약을 통해 해상전화와 광역위성 통신망(KOSNET) 등을 이용해 응급 환자의 다친 정도와 모습을 보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함정에서 적절한 초기대처를 시행한다.

서해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사상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문의료진의 상담지원으로 귀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정신·정신·정신

### 명당 공인증개사 082)431-2834. (H.P) 010-6460-2834

▶전남 나주시 명신동  
-네마우 과수원 수령 17년 430주  
-창고 1동, 도로 사용권호

매매가 평당 150평 하우스

▶광주 광산구 은곡동  
-단 558평, 창당 9만원

-도로권, 투자지역 양호

▶전남 영광군 풍평면 지내리  
-일자 12,730㎡(7,180평), 평당 7천원  
-대형차 진입 가능

▶전남 보성군 풍정면 5천평  
-도로권, 남한, 이산 경지도원만

▶전남 창원 유곡리  
-전 403평 매매가 3천2백평  
-기축권 및 주도능동

▶전남 북구 태평동 소원면 부근  
-일자 884㎡(26평) 매매가 3,500만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평, 주식재원, 민원지지 없음  
-도로권, 기축묘지 및 주도능동

▶전남 북구 태평동 소원면  
-일자 10,477㎡(3,200평) 매매가 9,200평  
-관련지역 일부포함, 죽계가족 및 저수지  
-영·현 지구, 부지 10년생 1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용지 가능, 자작석, 매립장 등

▶전남 화순군 화순읍 디자리  
-일자 7,001㎡(2,100평), 평당 1만원  
-도로권 일자이며 현 수령면은 편리스케

로, 당도지역에 예상작업은 편리스케